



하루에 하나



2026.9.7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51.75원(+1.35원)

KOSPI

6,687.21(+107.73, + 1.64 %)

KOSDAQ

813.50(+23.29, +2.95%)

국고채 10년 금리

4.360(-0.00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화수분전략	YoY 이익 증가율이 하락하면 무엇이 중요할까 [이재만]
김경환의 China Weekly	중국 투자자 분위기와 유망 업종 [김경환]
하나채권	[2027년 예산안] 재정수지 개선의 역설 [박준우]
ETF Weekly Letter	안심할 수 없는 매크로 환경 [장치영]

산업분석

음식료/담배 Weekly	실적과 배당을 겸비한 육각형 업종으로 투자 유효 [심은주]
은행 Weekly	속절없이 하락하는 환율. 은행은 환율 하락의 수혜주 [최정욱]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환율 때문에 실적보다는 메모리 가격에 집중 [김록호]
철강금속 Weekly	중국 동 스크랩 병목현상 심화, 동 가격 상승 견인 [박성봉]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미국 디젤 사상 최대 vs. 10월 사우디 OSP -2\$ [윤재성]
음식료/담배 Weekly Comment	다가올 4분기 대비해 배당 점검 + 8월 수출 Re [심은주]
2차전지 Weekly	미국 전력 행정 명령과 정상회담을 함께 고려한 배터리 투자 전략 [김현수]
디지털자산 Weekly	자산별 차별화. 국내 토큰증권 로드맵 발표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Tech&Stock Weekly	보안 & 데이터 인프라 기업, 실적을 통해 AI 수혜 재확인 [김재임, 김시현]
Lenovo	서버 시장에서 존재감 커지고 있는 글로벌 1위 PC 제조사 [백승혜]
Hana China Weekly	MetaX·일루바타코어엑스 흑자전환, 비렌테크 적자 축소 [백승혜, 송예지]
HANA US Weekly	SpaceX의 블레이드 생산 발표: 빠른 전력 확보의 중요성 [강재구]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S-Oil, 대한항공, 한화생명, 농심, 피에스케이홀딩스, RFHIC, 인텍플러스, 아로마티카

2026년 9월 7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화수분전략

YoY 이익 증가율이 하락하면 무엇이 중요할까

기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금리 상승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이익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진다. 8월 S&P500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YoY)은 36%를 정점으로 현재 35%로 정체됐고, 코스피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YoY)은 8월 328%를 정점으로 현재 316%로 낮아졌다.

우선 ① 2025년 10월부터 S&P500 지수 이익 증가율(YoY)은 10%를, 코스피는 20%를 상회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향후 기저효과 소멸로 이익 증가율의 레벨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② YoY 기준 이익 증가율은 코스피 변화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측면을 감안 시 이익 증가율 하락 국면에서 지수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코스피의 YoY 이익 증가율이 정점 형성 후 하락했던 3개월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YoY 기준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이 지수와는 달리 상승했던 업종들의 주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높았다(3개월 누적 코스피 -2.9%/YoY 12개월 예상 순이익 상승 업종 3.8%). MoM(전월 대비) 기준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 상승 업종의 3개월 누적 주가 수익률은 3.9%로 YoY와 비슷했다.

해당 국면에서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 상승 업종의 3개월 누적 주가 수익률은 4.3%로 가장 높았고, 반면 영업이익률 하락 업종의 3개월 누적 주가 수익률은 -7.4%로 가장 낮았다. 한편 YoY 이익 증가율이 하락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업종의 3개월 누적 주가 수익률은 4.1%(MoM 이익 증가율 상승)와 4.3%(MoM 이익 증가율 하락)로 높았다.

YoY 이익 증가율 정점 형성 이후 초기 하락 국면(3개월)에서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 지표가 주가 수익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업종이나 기업 선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경기와 원/달러환율 등과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국 제조업 경기는 확장 국면이지만, 모멘텀은 둔화됐다(8월 ISM 제조업지수 54.6p/7월 55.6p).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확장 국면에서 상승 시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전월 대비 평균 0.26%p 상승하지만, 확장 국면에서 하락 시 평균 0.02%p로 다소 낮아진다.

일반적인 원/달러환율 하락은 글로벌 경기가 확장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라 코스피 영업이익률 상승(전월 대비 평균 0.16%p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원/달러환율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10% 이상 하락했다. 2015년 이후 2번뿐이지만 3개월 동안 원/달러환율이 10% 이상 하락 후 영업이익률은 전월 대비 평균 -0.30%p나 하락했다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확장 국면에서 하락하고, 원/달러환율 하락 국면에서 코스피 내 전월 대비 영업이익률 월 평균 상승 폭과 상승 확률이 높은 반도체, 지주/방산, 에너지, 조선, IT하드웨어, 운송 등과 같은 업종 그리고 해당 업종 내 동일 국면에서 전월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폭과 상승 확률이 높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도표 14와 15 참고).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RA 손일수 ilsoosoon@hanafn.com

김경환의 China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9.7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중국 투자자 분위기와 유망 업종

- **중국 증시, AI와 신용 충격 완화되고 있지만 확실한 주도주 부재** : 9월에 진입한 중화권 증시는 7-8월 국내외 AI 관련주 급락과 신용 충격을 일부 극복하며 소위 업종 중심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지만 기존 기술주를 대체하는 확실한 주도주는 없다. 중국 투자자의 테크 포지션 과밀(전자/통신) 부담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반도체(과창50지수) 중심의 AI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단기 컨센서스는 크게 약화되었으며 해외 금리 상승에 따라 성장/기술주(심천 ChiNext) 확산도 제한되고 있다. 안정형 포지션 구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금융, 소비, 시클리컬 업종이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으나 기술적인 대응에 가까우며 기관과 개인의 신규 자금 유입은 여전히 신중하다. 홍콩 역시 7월 반등 이후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 **현재 매매 패턴으로 보는 중국 투자자의 컨센서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포지션 과밀과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낮아지고 글로벌 유동성과 금리 축소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커 보인다. 상반기 AI와 수출주 중심의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대외 민감도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상반기 극히 낮았던 매크로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8월부터 상승하고 있지만 강력한 부양에 대한 기대는 낮으며, 연내 소비와 부동산 회복 기대 역시 횡보하고 있다. 주식/채권 시장 모두 단기 경기와 물가 반등 기대도 약하다. **셋째**, 단기 주도주에 대한 확신은 약하고, 일부 성장/기술주 확산 관련 제약/바이오, 로봇, 에너지, 비철금속, 화학, 연산 인프라(임대/전력망/냉각) 관련 업황/실적 기대감은 2/4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고 있다.
- **중국 9월부터 자체 상승 동력 확보, 하드테크 비중 높고 수급 유리한 본토 우위** : 우리는 9월 전망에서 3/4분기 대외 악재(금리/테크)와 내부 수급 충격(대형IPO/신용)이 정점을 통과하고, 9월부터 자체 상승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부터 중국은 실적 상향조정과 경기 부양책 효과(재정/통화/산업), 미중 정상회담, 소비와 부동산 성수기 진입이 주가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4/4분기까지 하드테크 비중이 높은 본토 증시(CSI300/ChiNext/과창50)를 홍콩 대비 여전히 더 선호하며, 현재 구간은 2027년까지 성장주 실적과 내수주 회복 기반의 강세장의 경로라는 시각을 유지한다.
- **하반기 중국 증시는 큰 틀의 매크로와 정책 환경(성장모델 전환기/신용 축소), 중국내 저금리와 초과 유동성 환경, 실적의 상대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기술주 투자는 2027년까지 후반에서 전방으로, 수출에서 국산화 대체로 점차 전환되면서 국산 AI 인프라, 반도체 장비, 바이오, 로봇 등으로 계속 확산할 전망이다. 중국 가치주는 기관 포지션 구축 수요(금융/소비)와 시클리컬(반내권/배터리/비철/전력망) 대형주를 주목한다.
- **향후 3개월 중국 유망 업종** : 우선, 8월말 마감된 본토 반기 실적의 선행지표(수주잔고) 기준 중국의 하반기 실적 유망 업종은 대체로 전자, 통신, 비철금속, 화학, 석탄, 조선, 제약, 전기차, 제지, 자동화 장비 등이다. 지수 기준으로는 해당 업종 비중이 가장 큰 심천 ChiNext지수의 향후 이익 상향 조정폭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한다.
- **우리는 연말까지 중국 유망 업종과 대표주 선택의 기준을 '기술주의 확산과 내수주 회복'으로 제시한다.** ①제약/바이오 : 중국 혁신신약 분야 BD와 임상 데이터 발표의 고성장 추세 유효, 라이선스 아웃 거래 급증과 국제화 행보 수혜. ②로봇 : 유니트리 상장 이후 최소 3개월 밸류에이션 소화기 진입, 중기 관점에서 상업화 가속과 매출 총이익률 개선 기대. ③내수와 수출 기반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 : 조선, 기계, 전기설비, 비철금속. ④공급 개혁(반내권)과 원자재 가격 반등 수혜 업종 : 화학, 배터리(리튬), 전자상거래. ⑤중국/홍콩 소비 대형주 알파 전략 : 음식료, 인터넷, 여행 분야를 제시한다.

2026년 9월 4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채권

[2027년 예산안] 재정수지 개선의 역설

- 2027년 예산안, 국고채 순발행 감소는 긍정적이나 경기순응적 재정정책과 미래대응기금 구조 고려 시 금리 상승 압력
- #1. 채권 공급 경로: 순발행 감소는 긍정적이나 금리 방향 결정할 변수는 아님(p.3)
- #2. 펀더멘털 경로: 재정 승수 낮아도 경기 순응적 지출 확대는 성장을 상향 요인(p.4)
- #3. 미래대응기금 평가: 재정 안정화보다 과도한 부양책 재원으로 활용될 리스크(p.5)

내년 예산안, 수급 호재에도 부양 효과와 미래대응기금 고려 시 금리 상승 압력

정부는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정책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채권시장은 종종 ‘공급’ 요인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 국고채 수급 경로와 (2) 경제 펀더멘털(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번에는 신설된 (3) 미래대응기금의 잠재적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재정 수지들을 점검한 이후 (1)~(3) 관점에서 예산안의 금리 영향을 평가했다.

우선 주요 재정 수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다음 페이지 도표 참고). 수입과 지출이 폭증했고, 대규모 수입에 더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했다.

- 2027년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도표 1]
→ 2026년 추경안 대비 각각 +25.7%, +9.0% 증가
- 2027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59.9조원 ‘흑자’ [도표 2]
→ 작년 재정운용계획(-52.4조원) 대비 100조원 이상 개선
- 2028년부터 ‘지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2029년 통합재정수지 다시 적자로 전환. 2030년 총지출은 1,005조원
- 통합 및 관리 재정수지 비율 개선
→ 2029년 기준 작년 재정운용계획 대비 1.6~1.7%p 개선 [도표 3]
- 미래대응기금 162.3조원 신설 [도표 4]
→ 2027년 지출 45.4조원 + 국채 신규발행 축소 12.5조원 + 여유자금 104.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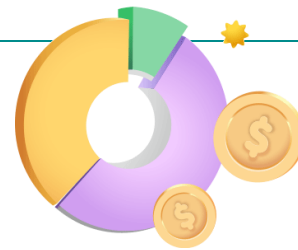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시장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이 최악은 피했으나 금리 하락보다 상승 압력이 더 클 전망이다. (1) ‘GDP 대비 국고채 순발행 비율’ 감소는 수급 관점에서 긍정적이나,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다. (2) 승수 효과는 제한적이나 대규모 지출이 내년 성장 전망을 소폭 높일 것이다. 또한 (3) 미래대응기금은 ‘안정화 기금’ 성격보다 ‘전략적 투자’ 등 부양책 성격이 강하며, 이는 중기 성장을 전망(≠잠재 성장률)과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이다. 3 페이지부터 (1)~(3)의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자.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park@hanafn.com

ETF Weekly Letter

HANA Global Weekly | 202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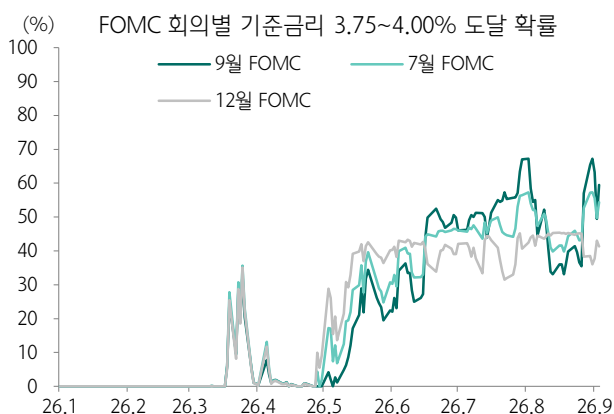
Global ETF 장치영 chiyoung.jang@hanafn.com

안심할 수 없는 매크로 환경

돌아온 중간선거의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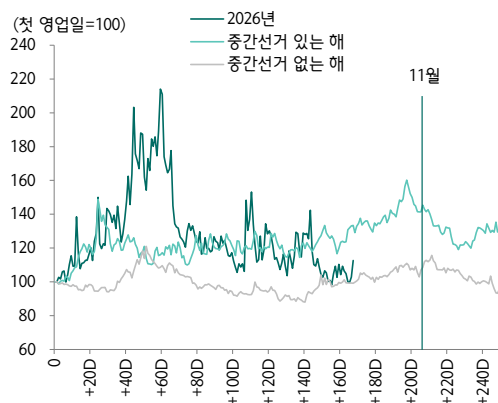
- **매크로로 향하는 시선** 지난주 미 증시는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에 성장주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지수 모두 보험권에서 마감.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 내 매크로 영향력 확대된 모습.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유가를 자극하며 금리에 상승 압력을 더함. 업종별로는, 유가 반등에 힘입어 에너지(XLE)가 2.2%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주 후반 오픈AI의 신규 모델인 Astra의 출시 이후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감에 IT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그 외 업종들은 대체로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 속 위험자산선호심리 제한됨에 따라 부진
- **테마별로는** 유가 민감도가 높은 에너지 테마가 2.6% 상승하며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했으며, 그간 부진했던 반도체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2.5% 상승을 기록. 반면, 그간 성장주 내에서 강세를 이어오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테마는 주요 보안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약세 시현
- **경계와 기대 사이** 지난주 미국 ETF 시장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에 위험자산선호심리 제한되며 주식형에서 자금이 유출로 전환되었음. 반면 채권형으로는 매수세가 지속되었으며, Debasement trade 속 유가 강세에 원자재로도 6주 연속 자금이 유입. 테마별로는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속 자금 유출입 강도가 제한된 가운데, 반도체는 저가 매수 심리와 오픈AI의 신규 모델 출시 기대감에 자금이 유입. 한편 미국-이란 갈등 재점화에 에너지 관련 테마로는 3주 연속 자금 유입 지속. 국내 ETF 시장에서도 경계심리가 높아진 모습이 관찰. 변동성을 헤지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와 금리 상승 구간에서 방어력이 높은 보험이 자금 유입 강도 상위권에 위치. 반면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성장 스타일인 AI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테마 ETF는 대체로 자금이 유출되는 양상
- **ISSUE** 잭슨홀 미팅에서의 매파적이었던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 높은 레벨에서 유지되고 있는 유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올해 남은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장 참여자도 증가. 매크로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핵심 이벤트인 중간선거도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3분기 후반부터 변동성이 확대되는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계절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국면. 높아지는 변동성을 수익화할 수 있는 커버드콜 형태의 ETF나 변동성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퀄리티 팩터의 ETF에 관심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 높아진 경계 심리



자료: Fedwatch, 하나증권

돌아온 중간선거의 계절: VIX 확대될 가능성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09월 07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4일

삼양식품(003230)

BUY | TP 1,800,000원 | CP 1,417,000원

농심(004370)

BUY | TP 540,000원 | CP 428,000원

KT&G(033780)

BUY | TP 220,000원 | CP 172,000원

음식료/담배

실적과 배당을 겸비한 육각형 업체로 투자 유효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카테고리인 '라면' 및 '빙과' 판단

8/14 자료('2Q26 실적 발표 시사점: 업종 지수 바닥 확인')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단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카테고리는 '라면' 및 '빙과' 업체이다. 삼양식품/농심/빙그레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라면'은 지역 다변화를 통한 해외 성과가 고무적이다. 불모지인 유럽(연간 인당 라면 소비량 4개 VS. 미국 15개 VS. 우리나라 75개)에서 2분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2Q 삼양식품 유럽 매출은 1,100억원(YoY 125.9%, QoQ 22.6%), 농심은 430억원(YoY 368.6%, QoQ 15.8%)을 시현했다. 삼양식품은 내년 중국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Capa 여유 분을 유럽 및 미주에 할애할 계획이다. 농심도 수출 전용인 녹산 공장이 10월 말부터 시가동 되면서 유럽 향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ASP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양사 영업마진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빙과'는 롯데-빙그레(4월 해태 흡수합병)로 시장이 양분되면서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 양사가 합병 이후 내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기 영업마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빙그레는 1,400억원 내외 이익 시현이 가능해 보인다.

배당 확대에 적극적인 업체에 주목

연말 갈수록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가 하방 경직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선호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 주가의 시가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업체들 가운데, 배당 확대 의지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관심은 지속 높아질 것이다. 해당 업체는, KT&G(26F DPS 8,000원 가정시 4.7%)/빙그레(26F DPS 3,600원 가정시 4.0%)/현대그린푸드(26F DPS 710원 가정시 3.8%)로 판단된다. 사측이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지는 않았으나 시가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업체는, 하이트진로(26F DPS 700원 가정시 4.5%)/대상(26F DPS 850원 가정시 4.4%)이다.

실적 및 배당 감안시, 삼양식품/농심/빙그레+KT&G

라면 업체의 실적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연말~내년 초 Capa 증설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빙그레는 해태 빙과 사업 흡수 합병 이후 내부 비용 효율화 노력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측의 배당 확대 의지도 긍정적이다. KT&G는 연말 갈수록 자사주 매입/소각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4분기 발표(하나증권 추정)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공산이 커 보인다.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속절없이 하락하는 환율. 은행은 환율 하락의 수혜주

은행 Weekly | 2026.9.7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에도 은행주 초과상승. 환율 하락 지속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defensive 매력 부각. 국내 기관은 연일 은행주 순매수 중

- 전주 은행주는 0.1% 하락했지만 KOSPI 하락률 1.5%에 비해서는 초과상승했다. 그 이유는 반도체업종 조정 양상이 지속되면서 KOSPI 상승 폭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오락가락하고는 있지만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defensive 성격의 매력이 커진 점도 한 몫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최근 연일 은행주를 순매수 중이다.
- 지난주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했다.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초 급등했던 미국 국채금리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 발언이 잇따르며 금리동결 기대감으로 잠깐 하락하기도 했지만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자 금리인상 확률이 다시 반등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와의 동조화 영향과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되면서 추가 하락. 1,350.1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29.4원 추가 하락했는데 6월말 대비로는 약 2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유진PE는 우리금융 14백만주 블록딜 처분. lockup 60일 이후 추가 매각 가능성 높은 편. 오버행 우려가 지속될 공산이 큼

-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리금융 과점주주였던 유진PE가 보유주식 14백만주(발행주식수대비 1.9%)를 3일 장 시작전 블록딜로 매각한 것으로 보도했다. 9월 2일 종가인 34,500원에 3.8% 할인된 33,189원에 매각했다. 총 매각규모는 4,646억원으로 매각주관사는 UBS였으며 전량 외국인들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 유진PE는 기존에 약 29.5백만주(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번 매각으로 잔여주식수는 약 15.5백만주(2.1%)로 추정된다. 매도자 60일 lockup이 걸려 있으므로 유진PE는 최소 11월초까지는 잔여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 유진PE는 2021년 12월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시 지분을 투자해 5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lockup 해제시 잔여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오버행 우려가 소멸되기는 어려울 듯 하다.
- 2016년과 2021년 예보지분 처분시 형성되었던 남은 과점주주는 키움증권(3.7%)과 한투증권(3.7%). 푸른생명(4%) 지분을 따로 인수한 새로운 과점주주이다. 이들 과점주주들은 구조상 단기간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환율 하락으로 은행 손익과 CET 1 비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확대 전망. 3분기 감익 가능성 낮아져センチ멘트 개선 기대

-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3분기 은행 손익과 CET 1 비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 환율이 분기말까지 지속될 경우 기업은행은 3분기에 이론적으로 2,500억원 정도의 외화환산익 발생이 가능하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2,000억원과 1,300억원 내외의 외화환산익이 발생 가능하다.
- 2025년말과 2026년 1분기말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및 확대 인정 등으로 이전보다는 환율 하락에 따른 CET 1 비율 상승 민감도가 다소 적어지기는 했지만 환율 하락시 여전히 10원당 약 1~2bp 정도의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형은행지주사들의 경우 3분기 중 약 20~40bp 내외의 CET 1 비율 상승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 폭에 비해 3분기 NIM 개선이 다소 어렵다는 점은 다소간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대출성장률이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어 순이자이익은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3분기 실적 또한 우려와 달리 감익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에 대한センチ멘트 개선 효과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와 반도체 흐름에 영향 받겠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을 겨냥한 매수 전략 바람직. 9월은 조정 양상에서 벗어나는 흐름 예상

- 국채금리와 반도체 주가 흐름에 따라 은행주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이어질 개연성은 있지만 낮은 multiple과 3분기 이익 호조 가능성 등을 감안시 실적 시즌을 겨냥한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다. 9월은 8월의 조정 양상에서 벗어나는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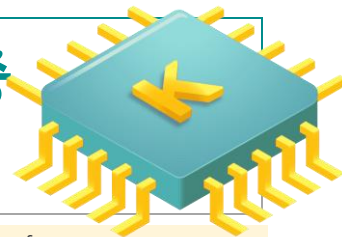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매수/TP 220,000원)과 하나금융(매수/TP 166,000원)을 제시

환율 때문에 실적보다는 메모리 가격에 집중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9.7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박규연 gyuyeonpark@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견조한 수출 데이터 확인

- 8월 영업일 평균 메모리 반도체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1% 증가한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DRAM은 전년 동월 대비 473% 증가한 7.5억 달러, NAND는 322%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MCP와 SSD는 각각 153%, 453% 증가한 5.8억 달러와 2.8억 달러를 달성했다. 전월 대비로는 메모리 수출금액이 24% 증가했다. DRAM과 MCP가 각각 전월 대비 22%, 27% 증가했고, NAND는 68% 증가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NAND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는데, DRAM 대비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며 일부 우려를 완화시켜 주었다. SSD 역시 전월 대비 39% 증가해 견조한 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9월 이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전월 대비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코스피 지수는 1.5% 하락하며 3주 연속 부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0.6%, 0.4% 하락해 지수 대비로는 선방했다. 지난주에 이어 삼성전자의 주가 낙폭이 SK하이닉스보다 컸다.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이 높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유는 자사주 매입에 의한 수급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주환원정책 내용도 양호했고, 무엇보다 주식 수급 차원에서 매물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도 편차가 컸다. Micron이 유일하게 9% 상승한 반면에 그동안 주가 움직임이 가장 양호했던 Nanya는 8% 이상 하락했다. 업황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지수 흐름 및 수급에 의한 한 주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 코스닥 지수는 3% 하락하며, 한 주 만에 반락해 코스피를 하회했다.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은 코스피 59%, 코스닥 -12%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하나증권이 커버하는 업체 중에서는 피에스케이홀딩스, 씨앤티엑스, 테스가 상승 마감했다. 대부분의 소부장 업체들은 7월 하락 이후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어진 상황이다. 피에스케이홀딩스는 HBM, CoWoS 증설의 수혜가 가능한 업체인데, 최근 TSMC CoWoS 공급 부족과 대만발 CoWoS 관련 서플라이체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 및 전략: 소부장까지 확대 유효. 9월 11일 수출 잠정치에 주목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예상보다 높은 상승폭 흐름도 유지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기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승폭 자체는 둔화되는 와중에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금번 3분기 메모리 가격도 7월말 리뷰 때의 가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DRAM과 NAND 가격 모두 하나증권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만, 환율 하락으로 인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추정치 상향이 일부 상쇄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메모리 업체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메모리 가격에 주목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하나증권은 소부장 업체들 전반적으로 투자 기회가 많다고 판단한다.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의 증설 일정을 감안하면 2028년까지 외형 성장 가시성은 매우 높다. 전공정 업체 중에서는 분기 실적 흐름이 양호한 테스, 피에스케이를 선호한다. 아울러 HBM, CoWoS 등의 패키징 쇼티지로 인한 후공정 업체들까지 투자 아이디어 확대가 필요한 구간이라 판단한다. 소재 및 소모품 업체들도 연말·연초에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9월 11일에 수출 잠정치가 발표된다. 전년 동월 기저가 높아지고 있어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월 대비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 유지가 주가 회복의 근간이다.

표 1. 반도체 주요 종목 Valuation / Performance / 수급 동향

기업/지수	시가총액 (십억원)	종가/지수	주가 수익률			주간 순매수 (십억원)			PER (배)		PBR (배)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26F	27F	26F	27F
코스피	5,336,327	6,687	-1.5	5.2	58.7	-870.3	-2,536.3	-3,062.1	6.4	5.0	1.6	1.3
코스닥	456,719	813.5	-3.0	4.2	-12.1	-734.6	5.8	746.9	22.9	16.9	2.7	2.4
삼성전자	1,493,724	255,500	-0.6	6.5	113.1	-1,005.1	-516.0	-1,003.7	5.3	3.8	2.3	1.5
SK하이닉스	1,203,121	1,647,000	-0.4	4.4	153.0	-1,368.9	-1,115.7	-2,780.5	4.7	3.7	3.2	1.7
주성엔지니어링	8,288	178,300	0.9	31.1	543.7	-34.7	78.9	-43.2	183.0	70.8	12.4	10.5
피에스케이	3,664	126,500	-1.6	0.4	242.8	-26.0	31.2	-3.8	23.1	19.0	5.4	4.3
피에스케이홀딩스	3,105	144,000	19.9	39.8	211.0	17.4	7.3	-24.3	22.4	17.6	5.0	4.1
테스	2,842	146,800	2.9	10.9	229.5	-26.1	39.1	-12.5	26.6	20.6	5.3	4.3
파크시스템스	1,838	262,500	-3.1	4.2	25.6	-5.6	4.6	1.0	40.0	30.9	5.9	5.0
브이엠	1,390	52,800	-9.0	-21.1	74.8	-25.0	23.6	2.0	17.3	11.8	5.5	3.8
씨앤티엑스	722	74,800	3.2	-0.7	-25.1	0.4	2.2	-2.5	12.2	8.9	3.0	2.3
원익머트리얼즈	403	32,000	-3.0	2.1	3.6	-2.0	0.9	1.1	6.8	5.4	0.7	0.6

자료: 하나증권



중국 동 스크랩 병목현상 심화, 동 가격 상승 견인

철강금속 Weekly | 2026.09.07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4만원(WoW, -1.1%), 열연 수입유통가: 90만원(WoW, -1.1%), 철근 유통가: 86만원(WoW, -0.6%), 후판 유통가: 100만원(WoW, 0.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195달러(WoW, 0.0%), 중국 열연 유통가: 3,359위안(WoW, +0.4%), 중국 냉연 유통가: 3,799위안(WoW, +0.2%), 중국 철근 유통가: 3,142위안(WoW, +0.9%)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0달러(WoW, +0.9%), 한국 스크랩가: 45.6만원(WoW, -1.3%), 호주 원료탄(FOB): 275.5달러(WoW, +5.7%)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4,371달러(WoW, -1.1%), 아연: 4,115달러(WoW, +0.8%), 연: 1,872달러(WoW, -0.1%), 니켈: 16,686달러(WoW, -0.1%), 금: 4,442달러(WoW, -1.2%), 은: 66.0달러(WoW, -1.4%)
-
- 국내 철강 유통가격: 유통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더불어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약세 지속
 - 중국 철강 유통가격: 원재료 가격 상승되었지만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강보합 수준에 그침
 - 산업용 금속가격: 미달러 약세 불구,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중동 리스크 확대로 전반적으로 약세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POSCO홀딩스: 33.7만원(-0.2%), 현대제철: 3.15만원(+1.6%), 세아베스틸지주: 4.24만원(-0.6%), 고려아연: 122.2만원(-11.1%)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5.86위안(+0.5%), A. MITTAL: 67.24유로(+4.1%), NSSMC: 691.9엔(+2.2%), TATA STEEL: 189.0루피(+1.5%), NUCOR: 261.07달러(+4.2%)
- 총평: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 국가별로 차별화, 미국과 유럽 상승, 반면 중국과 한국 하락 마감



미국 디젤 사상 최대 vs. 10월 사우디 OSP -2\$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9.07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미국 디젤 사상 최대 vs. 10월 사우디 OS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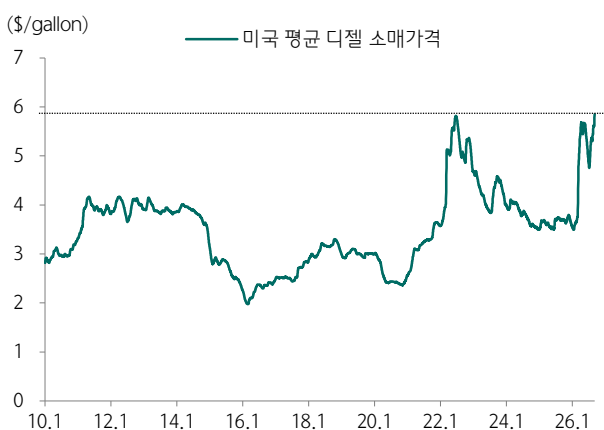
• 총평

- WTI 91.5\$(+10%), Dubai 101.9\$ (+9%). 정제마진 33.6\$(WoW -0.3\$)
- 석유화학 강세. MEG +17%, 톨루엔 +12%, SM/LDPE +9%, 에틸렌/벤젠 +8%, 프로필렌/LLDPE/PX/PTA +6% 등이 눈에 띄
- Top Picks: S-Oil, SK이노베이션, OCI홀딩스, 한화솔루션, 코오롱인더, KCC, 효성티앤씨

• 미국 디젤 사상 최대 vs. 10월 사우디 OS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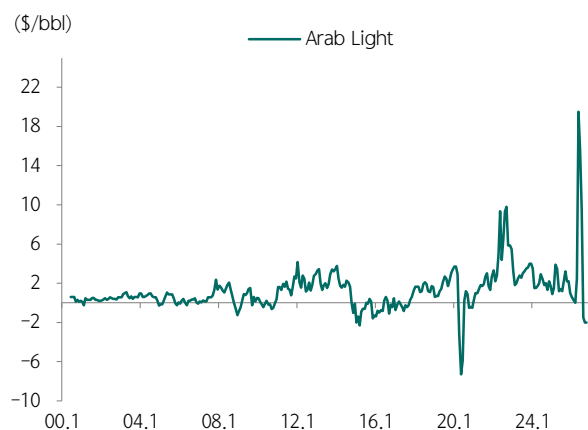
- **미국 디젤 가격/마진 사상 최대:** 미국 평균 디젤 가격이 5.8\$/gal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 디젤 마진은 9/2일 장중 108\$/bbl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 호르무즈를 통해 디젤 약 90만b/d, 글로벌 교역량의 10%가 운송되었으나 이에 대한 자질이 발생하는데다, 러시아 정유설비의 설비 타격에 따라 9/30일까지 디젤 수출 금지를 실시한 영향
- **유럽은 디젤 뿐 아니라, 가스도 비상:** 유럽 디젤 가격/마진도 초강세를 기록. 유럽 가격 강세로 차익거래가 가능해지면서 9월 중 한국산 디젤 약 67만bbl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음(약 2만km, 4~5주 소요). 문제는 유럽의 가스 재고도 낮다는 점. EU의 가스 저장률은 65%로 동일 기간 15년 래 최저. 특히, 독일의 재고는 53%에 불과. 카타르 LNG 설비 타격으로 장기계약 일부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태이며, 9~10월 인도분도 취소된 상태. 아시아와의 LNG 도입 경쟁 가능성을 감안하면 완화된 목표 80%도 달성 불가능한 상황. 유럽 가스 가격 강세 시, 디젤 가격은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될 것
- **미국은 가동률 상향도 불가능한 상태:** 미국 정제설비 가동률은 98%를 기록하며 2018년 98.1% 이후 약 8년 래 최대치. 미국 가동률의 역사적 고점은 1998년 8월 말 기록한 100.5%. 추가적인 상승 여력 사실상 제한적. 반면, 재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특히 중간유분(디젤/난방유) 재고는 8월 기준 1982년 이후 약 44년 래 최저. 미국 동부의 중간유분 재고는 36년 래 최저
- **사우디의 10월 OSP는 -2\$/bbl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10월 OSP는 9월과 동일한 -2\$로 설정. 유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례적인 흐름. 아시아는 미국/호주/캐나다/서아프리카 등으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중국도 사우디산보다 러시아/이라크 원유를 선호하면서 사우디는 M/S를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OSP를 마이너스로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것.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지배권 확보, OPEC의 균열 등을 감안하면 OSP 마이너스는 고착화될 가능성 높아
- **결론:** 1) 글로벌 석유제품 재고 부족 국면. 특히, 9~11월이 최성수기인 디젤의 Shortage가 심각 2) 반면, 사우디 OSP는 10월에도 마이너스가 유지되면서 정유사 원가 절감효과 뚜렷 3) 한국 정유사 실적 호조 지속 예상. Top Picks S-Oil, SK이노베이션

도표 1. 미국 평균 디젤 소매가격 사상 최대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사우디 OSP는 10월에도 -2\$/bbl(MoM 포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다가올 4분기 대비해 배당 점검 + 8월 수출 Re

음식료/담배 Weekly Comment | 2026.9.7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 주간 리뷰/전망 및 이슈 코멘트

1) 주간 리뷰 및 전망

- 전주 음식료 업종지수는 코스피 대비 -1.9%p 언더퍼폼 시현, 금리 인상 우려감 반영되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
- 전주 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반영되다가 주중 후반 일부 해소되는 모습 보여줌, 8월 견조한 수익률을 시현했던 음식료/담배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 대비 언더퍼폼 시현함. 대형주를 포함한 대부분 업체들의 주가 약세 시현
- 주중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하락하면서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심리도 다소 약화됨. 이에 삼양식품 주가는 전주 -8.4% 하락함. 농심 주가는 상대적으로 -4.6% 하락에 그쳤는데 그동안 삼양식품 대비 주가 상승률이 더딘 점도 있으나 환율 익스포저가 거의 중립에 가까운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됨. 9월 말~10월부터 녹산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데 최근 유럽에서의 라면에 대한 관심도 증대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내년 해외 매출 Level-up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이라고 판단됨. 미주에서도 에스닉 신규 채널 입점을 통한 물량 성장(3Q high single~10%) 흐름이 지속될 공산이 커 보임. 단기로는 삼양식품 대비 농심 주가가 견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전주 KT&G 주가도 -2.2% 소폭 하락함. 4분기 자사주 매입/소각과 더불어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을 저점으로 연말까지 주가 우상향 전망. 지금부터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한편, 주중 중반 국민연금의 지분 공시가 있었는데, 삼양식품 지분을 기존 10.69%→11.01%로 2.44만주 확대함. 국민연금은 삼양라운드스퀘어에 이어 2대 주주 유지, 한편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Silchester International Investors)도 오리온 지분을 기존 5.03%→6.06%로 40.9만주를 추가 확대 했다고 공시함. 이번 추가 취득으로 실체스터는 오리온홀딩스/국민연금에 이어 3대 주주로 등극함. 과거 실체스터는 일본 지방은행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한 경험이 있고 국내에서도 한국전력에 주주 서한을 통해 전기 요금 인상 및 배당 확대를 요구한 바 있음. 상기 감안시 중단기 오리온에 배당 확대 등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전주 상승: 대상 +5.5%(저가 매수 유입)
- 전주 하락: 노바렉스 -10.8%(2분기 실적 시장 기대 하회), 콜마비앤에이치 -8.9%(차익 실현 매물 출하), 삼양식품 -8.4%(환율 하락), 더본코리아 -5.0%(2분기 실적 시장 기대 하회), 농심 -4.6%(차익 실현 매물 출하), CJ제일제당 -3.1%(보수적인 3분기 가이드스), 빙그레 -2.8%(차익 실현 매물 출하) 등

2) 주간 이슈 코멘트

(1) 주가 하방 경직을 보유한 업체들(배당 점검)

- 연말까지 업종 주가는 단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라면' 및 '빙과' 업체가 주도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연말 갈수록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가 하방 경직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선호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 주가의 시가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업체들 가운데 배당 확대 의지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관심은 지속 높아질 것이다. 해당 업체는, KT&G(26F DPS 8,000원 가정시 4.7%)/ 빙그레(26F DPS 3,600원 가정시 4.0%)/ 현대그린푸드(26F DPS 710원 가정시 3.8%)로 판단된다. 사측이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지는 않았으나 시가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업체는, 하이트진로(26F DPS 700원 가정시 4.5%)/ 대상(26F DPS 850원 가정시 4.4%)이다.
- ④ KT&G: 추석 이후 향후 3년에 대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공시될 예정이다. 글로벌 Peer인 PM 및 JT 올해 주주환원율이 대략 70~75% 인데, KT&G는 지난 3년 간 주주환원율이 100%를 상회했다. 그동안은 자사주 매입/소각 및 배당 비중이 거의

유사했다.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서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꾸준히 이행하는 한편 배당에 대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 배당금은 작년 1,400원에서 →2,000원으로 600원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2025년 DPS 6천원→올해 8천원을 예상한다.

- ② 빙그레: 향후 3년 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동일한 DPS 3,300원(배당성향 53%)을 시행했다. 올해는 빙과 시장 경쟁 완화 및 우호적인 날씨 기인해 실적이 큰 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성향 30% 가정시, 26년 DPS는 3,600원~3,700원으로 추정한다.
- ③ 현대그린푸드: 2024년 11월부터 2027년까지 총 359만주(발행주식수 대비 10.6%)를 매입/소각할 계획이다. 7월까지 진행률은 51.5%이며, 올해 및 내년 각각 110만주(발행주식수 대비 3.5%), 116만주 내외를 매입/소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당배당금도 최소 전년대비 10% 증액(2025년 총 배당금 220억원)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기 배당금은 작년 306원에서 →올해 314원으로 8원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2025년 DPS 676원→올해 710원~740원으로 추정한다.
- ④ 상기 이외: 시가배당수익률이 4% 내외로 추정되는 업체는, 오리온홀딩스/하이트진로/대상이다. 오리온홀딩스(26F DPS 1,300원 가정시 시가배당수익률 5.1%)는 사업사인 오리온이 배당을 확대함에 따라 동반 주당배당금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하이트진로 및 대상은 주가 하락 기인해 배당 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연말까지 하방경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4) 8월 수출 데이터(수리일 기준) Re

- ① 라면: 전년동월대비 36.2% 증가한 1억 5,662만 달러 기록, 미국 및 중국 각각 26.3%, 44.4% 증가
- ② 담배: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한 5,727만 달러 시현
- ③ 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8,273만 달러 기록
- ④ 김치: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한 1,216만 달러 시현
- ⑤ 소주: 레굴러 전년동월대비 -14.2% 감소한 601만 달러 시현, 과일 전년동월대비 -19.9% 감소한 756만 달러 기록
- ⑥ 라이신: 전년동월대비 93.7% 증가한 1,134만 달러 기록
- 7~8월 누계 수출 성장률: 라면 YoY 25.0%, 담배 YoY 18.1%, 김 YoY -13.0%, 김치 YoY -4.0%, 소주 YoY -18.0%, 라이신 YoY 124.4%
- 총평: 라면 수출액은 7월 비우호적인 날씨 영향으로 다소 부진했으나 8월 전년동월대비 36.2% 증가해 고성장세 지속, 특히 중국 국경절~춘절 수요 성수기 대비해 중국 향 수출 증가 폭이 컸음. 담배는 5~6월 눌렸던 수출이 7월 들어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시 8월 감소 시현, 중국산 라이신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광범위해지면서 우리나라 업체의 단기 수혜 유지 중

3) 주간 관심종목

- 농심, 빙그레(실적 호조 전망)> KT&G(조정시 매수)

미국 전력 행정 명령과 정상회담을 함께 고려한 배터리 투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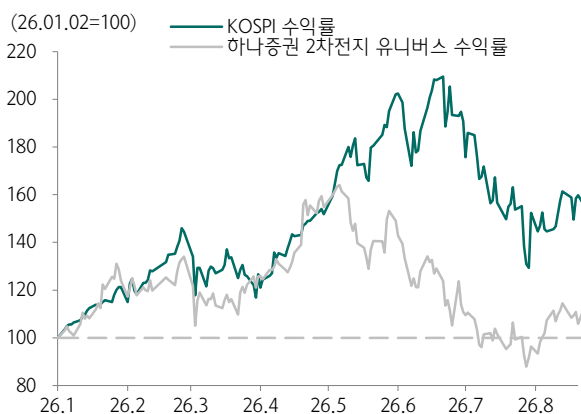
2차전지 Weekly <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 Overweight | 2026.9.7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2차전지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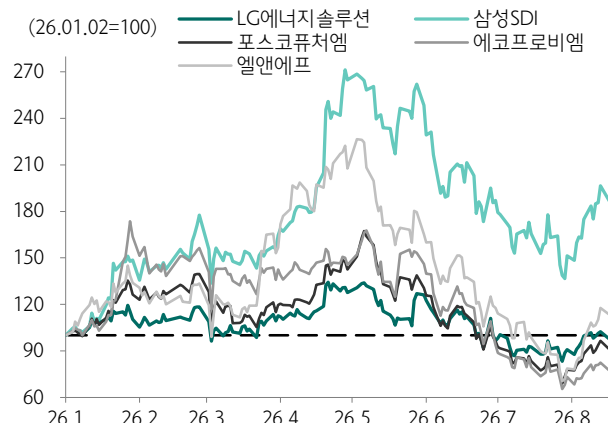
- 전력망은 국가의 방위, 제조 및 서비스 경제 활동,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보자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전력 시스템(bulk-power system)에 사용되는 일부 외산 장비의 구매/수입/이전/설치 금지 행정 명령을 발표한 것도 전력망, 혹은 전력 시스템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전력망을 안보 관점에서 다룬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에 중국 공산당이 “안보 개념 확장에 반대한다”고 반박한 것은, 오히려 전력망이 미중 패권 전쟁하에서 치열한 ‘battle field’가 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 그리고 해당 명령에서 규제하는 전력 시스템 범주에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도 포함됐다. BESS는 배터리 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셀, BMS, 인버터, 소프트웨어 등을 통합한 하나의 제어 시스템이다. 미국 정부는 BESS 역시 디지털 백도어가 존재해 외국이 원격으로 해당 장비에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such equipment might have digital backdoors ... that allow a foreign country to access that equipment remotely.”) 한다고 언급했다.
- 즉, 이번 행정 명령의 핵심 키워드는 전력망에 대한 ‘원격 접근 가능성’인데, BESS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의 계통 안정성 및 피크 절감을 위해 통신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 상기한 ‘원격 접근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 BESS는 디지털 백도어를 통한 원격 접근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미국의 탈중국 논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 이에 따라, BESS 통합 시장, 즉 SI(System Integration)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미국 SI 시장 내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약 15% 내외로 추정(최근 3개년 우드 맥킨지 자료 참조)되는데, 전체 시장 규모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는 상황에서 15%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약화될 경우 테슬라와 플루언스에너지와 같은 미국 SI 업체들의 수혜가 확대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022년부터 미국 SI 기업을 100% 인수하여 SI 자회사 Vertech를 통해 해당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한다.
- 한편, 9월 24일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되는 ‘미국의 배터리 양보설’ 역시, 상기한 ‘BESS 안보자산론’에 입각한다면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당장 대체 불가능한 일부 광물 자원(흑연 등)에 대해서는 희토류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구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미중 데탕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한다. 대형주 중심의 배터리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자산별 차별화. 국내 토큰증권 로드맵 발표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 | 202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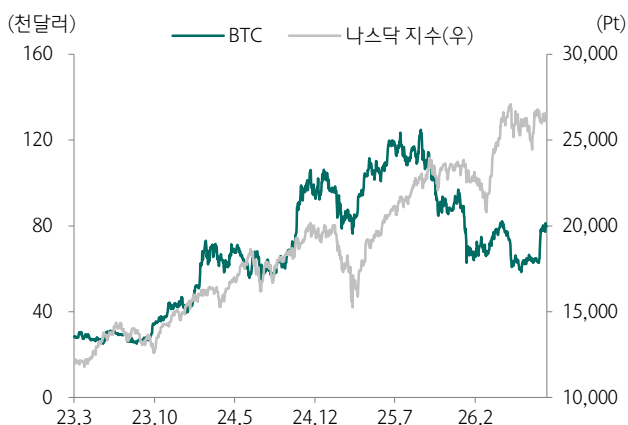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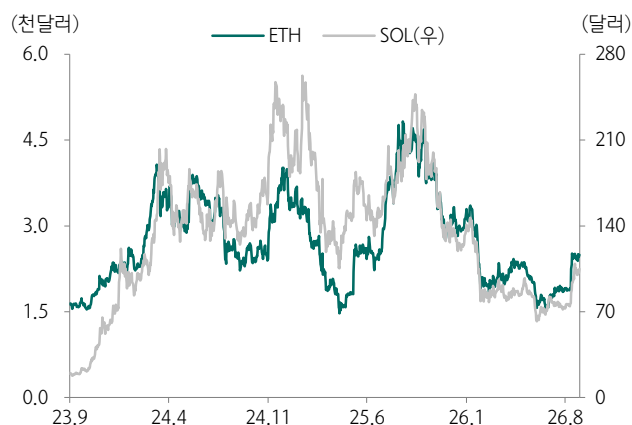
- 디지털자산 시장은 8/30~9/5 동안 소폭 상승했다. 주요 코인의 수익률은 BTC +2.8%, ETH +3.3%, SOL +3.3%, TRX -0.7%다. 주간 BTC가 8만달러를 지난주에 이어 재돌파했으나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 소폭 하락하여 마무리했다. 지난 주 BNB +10.5%, Hype +9.4%, ZEC +41.5% 상승하며 체인 활성화, 수익성이 부각되는 자산 중심으로 차별화가 나타났다.
- 토큰화 주식의 발행량은 29.2억달러로 30일전 대비 +12% 증가했다. 8월 30일~ 9월 5일 트랜잭션 볼륨은 107억달러다. 8월 2일~8월 162억달러에 이어 2번째 높은 주간이다. 8월 2일 주간의 대부분이 bStocks의 QQQ에 집중된 반면 다양한 자산들이 균형 잡힌 거래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Robinhood, Binance의 토큰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 지난 주 글로벌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은 주요 코인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주요 기업의 수익률은 Coinbase +3.4%, Circle +17.1%, Robinhood +17.1%이다. Circle의 USDC는 8월 초 730억달러를 하회했으나 디지털자산의 상승에 힘입어 발행량 750억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아직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보다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해 대부분 활용되는 만큼 시장의 상승에 동반한 발행량 증가를 예상한다. Robinhood는 밌코인과 토큰화 주식 거래 활성화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향후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 이후 RWA 시장이 개화한다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 트레저리 기업은 Strategy +12.2%, Bitmine +4.9%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Strategy는 4,603개의 BTC를 매입, 6월 22일 보고 이후 2달만에 BTC 축적을 재개했다. 현재 보유한 BTC는 845,050개이며 매수 평균 단가는 75,412달러다. BTC 가격이 매수 단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며 mNAV 할인 우려 완화, 주가 반등, 자금 조달, 추가 BTC 매입으로 이어지는 기존 플라이휠이 가동되며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상승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 국내에서 핵심은 토큰증권 로드맵 발표다. 금융위는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2027년 2월 토큰증권법 시행에 맞춰 1단계 인프라를 가동하고, 이후 공모증권과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확대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특이사항은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단순 조각투자에서 멈추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전반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글로벌은 이미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시작되었다. 2026년 연말, 2027년 초 미국 시장의 개화가 폭발적인 시장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국내도 단계적인 제도화가 이뤄지겠지만 결국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에 금융권과 핀테크는 STO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의 컨소시엄으로 대응해왔다. 다만 실제 상용화 단계, 토큰증권이 3단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온체과 결합되는 구조기에 디지털자산 인프라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축한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보안 & 데이터 인프라 기업, 실적을 통해 AI 수혜 재확인

Tech&Stock Weekly | 2026.09.04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몽고DB(MDB.US): FY27 2분기 실적 리뷰

몽고DB: Beat & Raise 지속, EA가 서프라이즈 견인

- FY27년 2분기 매출과 조정 EPS가 컨센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연간 가이드언스 상향조정 등 Beat & Raise 추세 지속하는 호실적 시현
- 실적발표 직후 주가 하락 요인은 아틀라스 매출 성장이 29%로 가이드언스를 300bp 상회했으나 시장에서는 30% 이상을 기대, 3분기 아틀라스 가이드언스가 26%로 제시되어 가속을 확인시켜 주지 못한 점이 실망 요인으로 작용. 또한 실적 발표 전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하며 실적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음
- 2분기 매출 서프라이즈 상당부분이 아틀라스가 아니라 EA(+36% yoy)에서 나왔음. 아틀라스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며, EA는 온프레미스 기반 기업용 서비스. EA 성장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나 MDB의 장기 멀티플을 시장에서는 아틀라스 성장률에 더 크게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선행지표는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가이드언스 대비 향후 업사이드 높다고 판단. RPO 91% 증가, cRPO 73% 증가, NRR 122%로 전분기 대비 개선, 분기 순증 고객 약 2900개로 역대 최대 기록, ARR 10만달러 이상 고객수 17% 증가, 대형 아틀라스 고객의 여러 제품 사용률 상승 등에 주목
- cRPO 가속, NRR 개선, AI 고객 모멘텀 강세를 고려하면 향후 아틀라스 재가속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판단. AI에이전트 가동을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관리에 적합한 OLTP(운영, 거래용) 데이터 소프트웨어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문서 모델 기반 대표 사업자인 MDB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 유지

팔로알토 네트워크(PANW.US): 놀라운 숫자, 그 이상의 스토리

4QFY26: 모든 주요 지표 기대치 상회, 차세대 보안 ARR 91억 달러, +63% yoy

- FY26년 4분기(7월결산) 모든 주요 지표가 가이드언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 플랫폼화 채택 확대와 AI 가동을 위한 보안 수요 증대로 계약 규모 확대가 가속화되며 RPO는 34% YoY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
- 차세대보안(NGS)은 순신규 ARR 9.7억 달러(+98% yoy)를 달성, 가이드언스(8억)를 크게 상회, ARR 91억 달러로 63% 증가. 플랫폼화 채택은 순신규 220건(+44% yoy)으로 최대치를 경신, 2,500여개에 이름
- 4분기 매출액 34.1억 달러(+34% yoy), 조정 EPS 1.02 달러(+7.4%) 기록, 시장 컨센을 각각 2%, 5% 상회. M&A에 따른 마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정 OPM, FCF마진을 각각 29.6%, 38.4%로 견고하게 유지하며 예상치를 상회. 사이버아크와의 비용 시너지 효과가 계획보다 1~2개 분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

사이버보안 중장기 구조적 성장 요인 뚜렷, 사이버보안 최선후주

- FY27년 1분기와 연간 가이드언스 주요 지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 4분기 대형 LLM 고객의 크로노스피어로의 이전에 따른 순신규 NGS ARR 증대가 1분기에도 일부 이어지면서 통상적인 1분기 계절성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FY27년 NGS ARR 성장 가이드언스는 +22~23%로 제시했으며, 연간 순신규 ARR의 60~61%가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AI 가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 12M FWD P/CF는 59배(2년 평균 37배)로 과거 추이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짐
- 그러나 1)사이버보안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2)중장기 성장성 격차 축소에도 CRWD(약 95배) 대비 여전히 큰 멀티플 격차, 3) FY27년 보수적인 가이드언스의 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주가 업사이드 높다고 판단

실적 발표 후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 1)AI에이전트 본격 가동과 오픈소스 AI 확산은 사이버보안 시장의 중장기 구조적 성장 요인, 2)아이덴티티 보안과 오피스빌리티 영역에서의 Cross-sell 본격화, 3)경영진의 탁월한 전략 실행력, 4)소수 통합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상승세 강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이버보안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팔로알토를 최선후주로 제시하는 기존 관점을 유지

2026년 9월 4일 | Global Equity

Lenovo(0992.HK)

서버 시장에서 존재감 커지고 있는 글로벌 1위 PC 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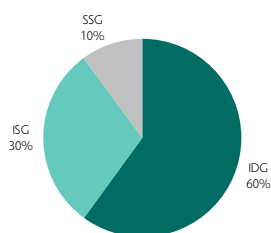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47.56 HKD
CP(9.3) 30.54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거래소
산업 분류	IT
주요 영업	IT 하드웨어
홈페이지	www.lenovo.com
시가총액(십억HKD)	379.3
시가총액(조원)	66.2
52주최고/최저(HKD)	36.16/8.52
주요주주 지분율(%)	
Legend Holdings Corp	31.41
Yang Yuanqing	6.3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8.2 214.3 179.3
상대	30.3 219.2 179.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USD)

투자지표	FY2025	FY2026	FY2027F	FY2028F
매출	69,077	83,075	106,330	125,307
영업이익	2,186	3,317	4,921	7,645
순이익	1,384	1,912	3,688	5,440
EPS(USD)	0.1	0.2	0.3	0.4
EPS(YoY, %)	26.3	57.7	54.6	56.4
ROE(%)	23.8	27.9	36.8	42.6
PER(배)	11.9	7.5	15.1	9.6
PBR(배)	2.8	1.9	4.8	3.5
배당률(%)	3.7	4.6	1.9	2.5

자료: Bloomberg, 아나중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서버 사업

레노버의 서버 사업 부문(ISG)이 최근 2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ISG(Infrastructure Solutions Group) 부문 매출은 AI/범용 서버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으로 2024년/25년 YoY +51%/+37% 고성장에 이어 2026년 상반기 YoY +68%로 재차 가속화되었고, 영업이익률은 사업부 구조조정 효과가 더해지며 2025년까지 마이너스에서 1Q/2Q26 +3.6%/+9.1%로 상승했다. 고객사와 논의 중인 AI 서버 잠재 프로젝트 규모는 올해 1분기 210억달러에서 2분기 540억달러로 급증했으며, 경영진은 올해 4분기부터 AI 서버 프로젝트 매출 반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레노버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를 핵심 고객사로 확보했고, AI 특화 신흥 클라우드 사업자(Neocloud)와 국가 AI 프로젝트로 서버 사업을 확대 중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CPU/GPU 기반 서버 수요가 모두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레노버의 범용/AI 서버 관련 실적 기여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PC 시장점유율은 경쟁사 대비 공급/가격 우위 통해 확대될 전망

레노버의 매출액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C 사업의 경우 메모리 공급 제약으로 인해 출하량은 부진하지만 가격 상승과 중국 현지 메모리 조달을 통해 매출과 마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Q26 레노버의 PC 출하량은 YoY 5% 감소했으나 공급 부족 환경 덕분에 메모리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적극 전가하면서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 성장률은 1Q26 YoY +24%에서 2Q +27%로 가속화되었고, 영업이익률도 QoQ 20bp 상승한 7.1%를 기록했다. 2027년에도 글로벌 PC 공급 제약과 수요 약화로 출하량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나, 레노버는 글로벌 1위 제조사로서의 대규모 부품 조달 역량과 고가/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 상승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버 부문 수익성 개선이 중장기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

레노버의 수익 구조가 기존 PC 사업에서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ISG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서버 사업부문이 레노버의 중장기 리레이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레노버의 서버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유지해 왔으나, 향후 ISG 부문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이러한 시장의 우려 완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경쟁사인 Dell의 현재 인프라 솔루션 사업에는 대략 20배 수준의 멀티플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레노버의 서버 사업 성과와 수익성 상승세를 감안하면 최근 3년 평균 PER인 약 9.5배 대비 리레이팅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MetaX·일루바타코어엑스 흑자전환, 비렌테크 적자 축소

Hana China Weekly | 2026.9.4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매출/순이익 모두 컨센서스 하회

- 8/28 상반기 실적을 발표. 매출은 9.5억위안(YoY +191.6%), 순이익은 1.1억위안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 주요 배경은 본업보다는 지분투자 관련 대규모 평가이익으로 GPU 사업의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되었음. 연구개발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 신규 반도체 부품 재판매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전체 수익성을 훼손. 해당 사업은 고객 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부 부품을 조달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마진을 기록했으며, 재고평가손실까지 발생해 손익 부담을 가중. 결과적으로 외형 성장과 회계상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본업의 이익 체력과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적으로 평가.

Biren Technology(6082.HK): 매출 급증, 적자 폭 빠르게 축소되는 흐름

- 8/30 Biren Technology는 상반기 실적을 발표. 매출은 12.4억위안(YoY +1,997.6%) 급증하며 컨센서스 21.1% 상회, 순손실은 377.2백만위안(YoY +76.4%)을 기록. GPGPU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벽력 시리즈의 주요 고객사 공급 확대와 고객 다변화가 매출 성장을 견인. 매출증가율이 비용 증가율을 크게 웃돌며 적자 폭이 빠르게 축소되는 가운데, 7월 약 55.8억홍콩달러 규모의 신주 배정을 통해 차세대 제품 개발 자금도 확보. 국산 GPU 사업이 본격적인 매출 확대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흑자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BYD(1211.HK): 2Q26 매출/순이익 컨센서스 하회, 수익성은 개선세 지속

- 2Q26 BYD 매출은 1,946억위안(YoY -3.2%)으로 컨센서스를 8% 하회했고, 순이익은 82억위안(YoY +30%)으로 컨센서스를 5% 하회. 매출/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이유는 중국 판매량 비중의 QoQ 확대와 28억위안 규모의 환손실 때문인 것으로 추정. 다만, 수익성이 높은 해외 판매 비중 확대에 힘입어 전사 수익성은 2Q25를 저점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음. 중국 내수 판매의 단기 회복 가시성이 제한적인 만큼, 해외 판매 고성장 지속 여부와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9.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SpaceX의 블레이드 생산 발표: 빠른 전력 확보의 중요성

AI 전력 병목이 핵심부품까지 내려온 상황: 이미 전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가치 부각 기대

- SpaceX는 가스터빈의 블레이드와 베인을 직접 생산 계획 발표: 발전설비 확보 시점을 최대 18개월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힘
- 전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AI 기업의 내재화가 발전설비 핵심부품까지 내려온 것을 시사
-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은 이미 공급이 가능한 전력(GLXY·APLD·WULF·CIFR 등)

- 우리는 연간전망과 9월 Monthly 자료를 통해 GLXY, CIFR 등을 추천했다. 가상화폐 채굴 업체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부(Powered Shell)가 실적에서 부각된다면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 SpaceX가 천연가스 발전용 터빈의 블레이드와 베인을 직접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배스트롭에 블레이드와 베인을 생산하는 주요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현재 가스터빈 공급 과정에서 블레이드와 베인이 주요 병목 중 하나라며, 직접 생산할 경우 발전설비 가동을 최대 18개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레이드와 베인은 단순한 금속 부품이 아니다. 가스터빈 내부의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니켈계 초합금을 이용한 정밀주조와 단결정 생산기술이 필요하다. 신규 주요공장이 안정적인 생산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블레이드를 직접 만들 정도로 발전설비 확보 시간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 SpaceX의 발전용 터빈 내재화 소식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전력 확보 경쟁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 병목이 길어질 수 있다. GE Vernova의 가스발전 설비 수주잔고와 생산슬롯 예약은 2026년 1분기 100GW에서 2분기 116GW로 증가했다. 회사는 연말까지 최소 125GW를 예상하고 있지만, 연간 생산능력은 단기간에 같은 속도로 늘리기 어렵다. 2026년 3분기 기준 20GW 수준이며 2028년 24GW, 2030년 30GW로 늘릴 계획이다.
- 부품업체의 실적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Howmet Aerospace는 전 세계 고온 터빈 블레이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Howmet Aerospace의 가스터빈 관련 매출 증가율은 2025년 4분기 32%, 2026년 1분기 39%, 2분기 38%를 기록했다. 회사는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수요를 주요 성장 동인으로 설명했다. 2027년 설비투자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SpaceX가 가스터빈의 마지막 병목까지 직접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것은 18개월을 줄이기 위해 블레이드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전력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자체발전은 전력망 연결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발전설비의 생산, 가스 공급, 환경허가와 건설까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기존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 확보형 데이터센터(Powered Shell)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있는 곳에 발전소를 새로 짓는 대신 이미 대규모 전력이 확보된 부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방식이다. 기존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상화폐 채굴시설은 이미 토지와 전력연계, 발전설비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Galaxy Digital의 Helios는 이미 이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2026년 7월 CoreWeave에 133MW의 실제 IT 전력용량 공급을 완료해 15년 임대료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추가 260MW도 건설 중이며 CoreWeave와 계약한 전체 용량은 526MW다. Applied Digital은 Polaris Forge 1에서 175MW가 현재 가동 중이다. 5개 데이터센터에서 총 1,410MW의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기본 15년 계약매출은 약 362억달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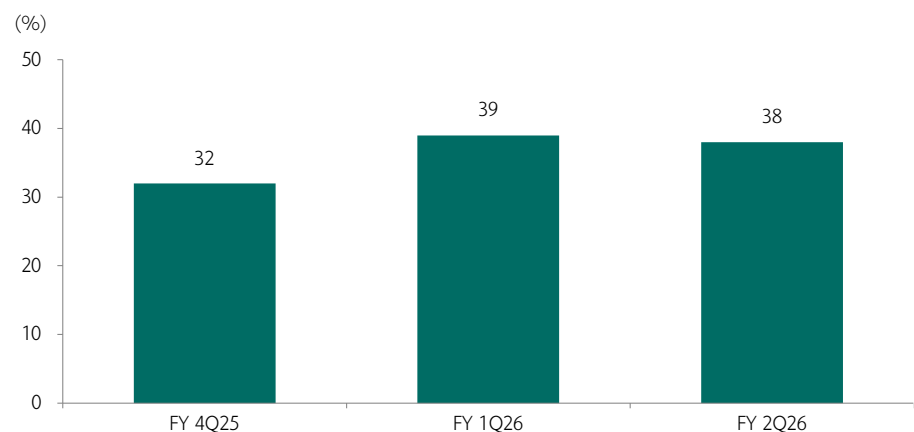
- TeraWulf는 Lake Mariner에서 102MW의 실제 임대매출이 발생하는 전력용량을 운영하고 있다. Anthropic과 켄터키 Justified 부지의 401MW, 20년 계약을 추가하기도 했다. 공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8년 초 전체 용량이 가동될 예정이다. 기본 계약기간의 예상 매출은 약 190억달러다. Cipher Digital은 Amazon과 300MW, Fluidstack·Google과 300MW 등 총 600MW(Gross)의 데이터센터 계약을 확보했다. Black Pearl에서는 2026년 8월 첫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시작해 임대료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 SpaceX의 블레이드 내재화 소식에 전력기기 기업들(GE버노바, 지멘스, 히타치 등)과 블레이드 기업(Howmet Aerospace)들이 반응했지만 신규 블레이드 생산시설이 기존 업체의 품질과 생산량을 단기에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발표를 핵심 부품 또는 가스터빈 기업들의 약재라는 관점보다 가스터빈 공급 부족이 핵심부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표1. xAI의 블레이드, 베인 내재화 발표 후 관련주 주가 변동성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2. Howmet Aerospace의 가스터빈 부문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자료: Factset, Howmet Aerospace IR, 하나증권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9/7	1,447,000	신규	-	• 록빌 공장 매출 반영과 고환율 효과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드선 상단 달성 가능성 높아 • PolyPeptide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며 중장기 생산능력·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9/7	548,000	신규	-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Oil (010950.KS)	9/7	157,300	신규	-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대한항공 (003490.KS)	9/7	30,200	신규	-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한화생명 (088350.KS)	9/7	5,740	신규	-	• 중장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신계약 수익성 크게 개선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 기대
농심 (004370.KS)	9/7	430,000	신규	-	•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7	144,000	신규	-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9/7	48,300	신규	-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인텍플러스 (064290.KQ)	9/7	40,150	신규	-	• 북미 고객사향 반도체 검사장비 수주 확대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수혜 기대 • 고마진 반도체-기판 검사장비 비중 확대와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 기대
아로마티카 (0015N0.KQ)	9/7	10,120	신규	-	• 아마존 판매 급증과 북미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매출 고성장 지속 전망 • 자체 생산-R&D 기반의 높은 제품 경쟁력과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중장기 성장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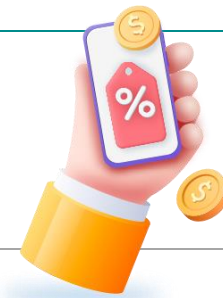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0%	-0.49%p	+73.58%	+14.2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신규	-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Oil (010950.KS)	8/31	149,200	157,300	5.43%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75,500	1.66%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13,500	-6.36%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55,000	-3.83%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48,000	19.39%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960	-1.32%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01,000	22.68%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중산 (103140.KS)	8/3	71,200	78,400	10.11%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2,000	-6.72%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417,000	26.63%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19%	+2.15%p	+41.03%	-18.3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975	-7.6%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8,540	30.4%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050	-7.5%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8,935	-18.4%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8,980	-7.5%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5,620	-3.4%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8,535	-13.0%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55	-7.3%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5.13	13.1%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7.66	-0.8%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6.84	-1.8%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5.32	2.4%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52.60	69.4%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4.69	-3.0%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7.54	-2.8%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4.38	5.2%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6	9.7	9.8	9.9	9.10	9.11	9.12
	- 일본 7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5) - 독일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2%)	- 한국 2분기 GDP P (E --, 이전치 0.6%) - 일본 2분기 GDP F (E --, 이전치 1.1%) - 미국 8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9.8)	- 한국 8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 중국 8월 PPI (E --, 이전치 3.5%) - 중국 8월 CPI (E --, 이전치 0.5%)	- 유로존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2.4%) - 미국 8월 PPI (E --, 이전치 4.7%) - 미국 8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1.7%)	- 일본 8월 PPI (E 7.4%, 이전치 7.2%) - 미국 8월 CPI (E 3.4%, 이전치 3.4%) - 미국 8월 근원 CPI (E 2.4, 이전치 2.5%) -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E 51.0, 이전치 51.7)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일본 7월 설비가동률 (E --, 이전치 4.1%)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4.1%)	- 한국 8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9.1%) - 한국 8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18.7%) - 중국 8월 소매판매 (E 0.5%, 이전치 0.6%) - 중국 8월 광공업생산 (E 4.9%, 이전치 4.5%)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31.4)	-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E --, 이전치 9.7%) - 미국 8월 소매판매 (E 0.8%, 이전치 -0.6%)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 미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유로존 8월 CPI (E --, 이전치 3.3%) - 영국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3.75%)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2.4%) - 미국 8월 미결주택매매 (E --, 이전치 -2.3%)	- 한국 8월 PPI (E --, 이전치 7.7%) - 일본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1.0%) - 일본 8월 CPI (E --, 이전치 1.9%)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3%, 이전치 0.2%) - 미국 8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0.2%)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